

MC : 경인방송 상쾌한아침 원기범입니다. 수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정중계탑 시간인데요? 동구에 박문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죠? 송도로 이전한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여론이 있는데 원도심이죠 중구에 있는 제물포고등학교가 송도이전을 추진하다가 역시 반대여론에 밀려서 중단된 상탠데 동구에 박문여중고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죠? 그래서 동구지역 출신의 시의원 미리 말씀드린 대로 허인환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동구 제1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 네 안녕하세요?

MC : 제1선거구면 어디인가요?

의원 : 네 만석동하고 화수1.2동, 화평동, 송현1.2동이 지역구입니다.

MC : 네 그렇군요 전반기에도 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위원장이 되셔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어떤데 초점을 맞춰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갈 생각이신가요?

의원 : 우선 산업위원장을 맞게 된데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하반기에 산업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영구화하려는 부분과 관련해서 또 송도의 영리병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오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혼란만 더 초래하고 있다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산업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빠른 결정을 통해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습니다.

MC : 수도권매립지하고 송동영리병원 두 문제만 잘 풀어 놓으셔도 인천시사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데

의원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MC : 산업위원회 여러 현안 나중에 기회를 봐서 더 말씀 나누기로 하구요 오늘 박문여중고 송도로 이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말씀 나눌 텐데 이건 뭐 학교 이전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의원 : 네 단순히 학교이전 되는게 아니고,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문여중은 2010년도 박문여고는 2011년도에 각

서를 썼어요 앞으로 향후에 5년간 우리가 이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MC : 작년 재작년 일이잖아요?

의원 : 그러면은 2015년 16년까지는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MC : 그렇죠 각서를 썼다는건

의원 : 그 각서를 쓰면서 교육청으로부터 8억2천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각서는 그냥 각서다 뭐 단순한 문서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탁상행정의 어떤 전영적인 모습으로 밖에 보여 질 수 없겠다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구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지역사회 의원 분들도 그렇고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MC :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8억2천만원 예산은 교육청에서 받은 거죠?

의원 : 네 교육청 시비로 받은 겁니다.

MC : 받았는데 그걸 받았단 얘긴 학교 시설 정비할 거 있음 정비하고 이런데 쓰겠다 얘기 아닙니까?

의원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보수하고 창문틀 교체작업들을 다 한겁니다.

MC : 그러니까 최소 5년을 써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쓰겠다 해서 받게 된 건데 지금 5년은커녕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문여중고 동구지역에 뿌리를 내린 역사가 60년 된다면 서요?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송도로 이전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의원 :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도로 이전 한다고 하면 박문여중 같은 경우는 80%가 동구지역 주민의 학생이고요, 박문여고는 한 20%가 동구지역에 거주

하는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학생 같은 경우는 바로 버스를 타고 서구나 남구나 이 지역으로 주변지역으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MC : 동구에 지금 여중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의원 : 여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고도

MC : 아니 동구 전체에

의원 : 네

MC : 아니 근데 그거 하나 있는 걸 옮기겠다는 말입니까?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 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MC : 이걸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요즘은 중학교들이 많아요? 저희 학교 다닐 때야 뭐 30분 1시간씩 버스타고 다녔지만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지금은 바로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데 왜 동구민들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의원 : 네 맞습니다.

MC : 네 그러면 인근에 학교가 없다 이런 부분 말씀을 하신 건데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의원 : 지금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환경이 좋아야지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MC : 그래야 이사 오죠

의원 : 네 근데 지금 학교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동구에 사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MC : 그렇죠 떠날 수 밖에 없죠

의원 : 네 그래서 균형적인 발전 측면에서도 박문여중과 여고는 반듯이 동구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C : 옮겨야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박문여중 재단이 천주교 인천교구 아닙니까?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지금 중구 답동에 인천교구가 있죠? 고거를 학교이전으로 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그쪽으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그럼 동구 침체를 대신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이런 논리던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의원 : 물론 박문학교가 이전을 하고 그 부분에 교구가 옴으로 해서 주변에 상권은 일부는 활성화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구 전체 측면으로 보서는 그 부분은 일부분일 따름이지 박문학교에 학생이 중학생 같은 경우는 700여명이 넘습니다. 그럼 거의 700세대 이상인데 그럼 학교 보낼 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 할 수 밖에

MC : 이전하거나 버스를 타던가

의원 :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로다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부담이 많이 갈 수 밖에 없다 라는거죠?

MC : 네 경제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지역 활성화는 일부분이고, 오히려 학교가 남아있을 때가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계속 보도자료 내는 걸 보면 인천교구 또 박문여중고는 학교교사가 낡고 위험해서 옮겨야 된다 또 이런 논리던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송도로 이전을 하면 재정적인 편의를 받을 수 있어서가 아닌가요?

의원 : 네 일정부분은 우리 송도에 학교 용지로다 해서 중학교 부지하고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교가 이전을 할 경우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20%,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30%로 부지를 살 수가 있어요

MC : 그냥 주는 샘이네요

의원 :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MC : 바로 그런점 때문에 갈려고 한다 얘기가 되는데 앞서 말씀 드렸습시다만 제물포 고등학교도 옮기려고 그러다가 반대여론에 밀려서 중단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의원 : 네

MC : 근데 이런 논리라면 제고가 되는 것도 어떻게 막겠어요 또 이전을 추진하고 싶은 원도심의 여러 학교들 다 송도로 이전할 수 밖에 없을텐데 이렇게 되면 말씀 하신데로 원도심의 공동화 또 교육의 공동화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인천시의회에선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의원 :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인 박문여중 여고가 이전을 할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전으로 결정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수 밖에 없고요 또한 시의회에서는 지난번에도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에 교육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고민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저희 의회에서 어떤 교육청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MC : 그렇지 않아도 중구하고 동구 통합 한다 이런 얘기 또 나와 가지고 주민들 심기 불편 하실텐데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는군요 앞서서 말씀하시기를 송도로 이전을 하면 조성원가의 2~30% 수준으로 제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렇게 해주는 건가요?

의원 : 연세대학교 국제개발 주식회사에서 그렇게 부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저희 경제청에서 연세대학교를 개발하면서 그쪽에 부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했었고, 거기서 20%30%로

MC :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의원 :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몇천 세대가 거기도 학교가 필요로 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교들을 유치를 하던가 아니면 학교를 신설을 해야 되는데

MC : 신설을 하면 돼잖아요?

의원 : 그래서 저희 요구하는게 중학교는 신설을 해라 의무교육이니까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정 한다 라면은 그런 부분으로 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은 연대에서도 져야 된다 라는거죠

MC : 동구에 학교가 수십개가 있어서 너무 많으니까 옮겨도 돼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 있는걸 그렇게 옮기겠다니까 동구주민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화가 나는데 또 교육청에서는 학교 이전하면 지원 받는게 있습니까?

의원 : 교육청에서는 교과위로부터 100억을 받은

MC : 왜 받지요?

의원 : 학교이전 재배치에 따른 보상성격의 교부금 성격으로 해서 100억을 지원 받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교구는 교구 나름대로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3자가 공히 다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고 다만 저희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님들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MC :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은 다 문제나 논의조차 안돼고 있는 그런 거네요. 교육청에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만 교육청이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옳은 방법입니까?

의원 : 교육청은 박문여중과 여고로부터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각서라는 의미가 됩니까?

MC : 약속이죠?

의원 :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을 교육청에서도 지켜야 되고, 박문여중과 여고

에서도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MC : 최소 2016년 까지는요

의원 : 15년 16년까지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방관하는 자세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을 그렇게 펼쳐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MC : 알겠습니다. 박문여중고 동구 주민들께 한말씀 직접 부탁드립니다.

의원 : 네 지금 박문여중고라든가 동구 주민분들에게 말씀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 교육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이전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나 이해가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관하고 제3자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과 관과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빨리 풀 수 있는 주체는 바로 교육청이다 그런 만큼 교육청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MC : 각서 받은 대로 일단 2015년 16년까지 가고 그리고 인천 송도에 학교 신설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MC :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 : 네 고맙습니다.

MC : 인천의정중계탑이었습니다 인천시의회 허인환 산업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